

개혁교회 예배를 위한 지침 (Part 1)

By W. L. Breidenhof

trans. by Seok-Jun Yun

W. L. Breidenhof는 브리티시 콜럼비아(British Columbia)주 랭글리(Langley)에 있는 캐나다 개혁교회의 동사목사이다.

이 글은 클라리온 Volume 56, No.23(November 9, 2007)에 실렸던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주 말해지고, 또 정당한 것으로서 모든 삶은 예배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서 구속받았고, 또 그것은 주일에 두 세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들(주일예배-역자주)을 넘어서서 확장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에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서가 아닌, 예배를 위해 모인 신자들 가운데 현존하신다(마18:20).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공적 예배를 위해 회집했을 때 또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신다(고전5:4). 이것은 연합적인, 공적인 예배가 신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와는 차별된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것은 너무 독특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 시리즈 글에서 나는 우리의 개혁교회 예배예전에 관하여 탐구해 보기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주일에 모였을 때, 무엇을 그리고 왜 행하는지에 관하여 알 필요성이 있다. 이것들은(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역자주) 물려받은 단순한 전통인가, 아니면 성경적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가? 현격하게 다른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다른 배경의 교회들을 보게 될 때 이는 단지 “예배 스타일”의 문제인가, 아니면 더 중대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이 첫 번째 글에서 우리는 개혁교회 예배 형태를 결정짓는 두가지 일반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규정적 원리(The regulative principle)

하 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의 답은 이 원리를 가장 간명하게 잘 표현하고 있다. 이는 2계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관한 언급에서 나온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적이고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예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더하거나 빼지 않을 것이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충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간의 연관성을 성경에 관한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태도가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성경 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합당한 일이 아니다”(벨직신앙고백서 제 7장)

이 원리는 예배에 관한 규정적 원리(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 RPW)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예배에 관하여 개혁의 혹은 성경의 원리들로서 아주 잘 묘사된 것이다. 이 원리는 개혁교회가 로마교회 뿐만 아니라 루터파 교회와도 구별되는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로마 가톨릭은 예배에 관하여 성경에 명령된 것보다가 교회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에 대해 자유롭다고 믿는다. 루터파 교회는 만약 주어진 예배의 실체가 성경에 숨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허락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만 하며,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러한 원리를 방어하는 고전적인 본문들 중 하나는 레위기 10장 1-2절에서 발견된다. 나답과 아비후는 야웨 앞에서 그가 명하지 않았거나 그의 말씀에서 허락되지 않은 불을 드렸다. 비록 그들이 행한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세부적으로 불명료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무언가를 더하려하는 시도를 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 결과는 야웨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멸한 것이다. 이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명령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 원리들을 적용하자면, 마음 속에 두 종류의 조건을 영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예배의 실제에 관하여 명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입장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필수적으로 직접적인 명령-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 때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명백히 따라야 할 예들을 주고 있다. 다른 때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듯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1장 6항)”을 따라 어떠한 실제들을 끌어내거나 추론할 수 있다. 본 글의 시리즈가 진행되어져 가면서 우리는 이에 관하여 더 명확한 내용들을 살펴볼 기회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예배의 요소들과 환경들 사이의 중요한 구분이다.

요소들은 예배 내에서 행해지는 것들이다. 환경들이란 예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교회가 개별의자를 가져야 하느냐, 장의자를 가져야 하느냐 등과 같은 문제는 환경이다. 동일하게 찬송할 때에 반주를 해야하느냐와 같은 문제나 오전 예배를 9시 30분에 드려야 하느냐, 10시에 드려야 하느냐 등의 문제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은(환경) 성경으로부터 명령되어진 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 의해 형성된 지혜와 사리분별에 따라 행해져야 할 것들이다. RPW는 오직 예배의 요소들에만 해당된다. 환경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언약 구조의 원리

그러므로 RPW가 따르고 있고 성경이 우리에게 예배에서 있어야 할 많은 요소들에 관하여 주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하지만 어떻게 이 요소들을 구조화해야 하는가? 이 역시 동일하게 성경이 모종의 유형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소위 “언약구조의 원리”가 그것이다.

모든 성경의 언약에는 두 부분이 존재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구약성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제사장적 성감에서 제사장들은 야웨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나타낸다. 다른 측면에서 그들은 백성들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 성막과 성전은 위엄 있는 어떤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반영한다.

이 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적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언약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적 관계를 이모저모 반영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요소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게 된다. 예배를 통한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이 구별되게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은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다시 반응한다-등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가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간의 언약관계, 두 그룹 중 하나가 다른 한 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이다.

공적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일들 중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최고의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의 삶에서 그의 능력이 명백하게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데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 성실하게 되어 우리의 예배가 가장 확실하게 성령과 진리 안에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G. 판도른(G. VandDooren)의 “예배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Reformed Liturgy, Premier, 1980)”을 추천한다.